

김수암

### 1. The Rhetoric of the Tribute System and Reality of the Treaty System

- 조공체제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의 이상적 현실: 전쟁에서 유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유연성, 상당한 양의 歲幣, 대등한 기반 아래 이웃 나라와 관계를 수행하는 전통, 오랑캐의 우월성 등 광범위한 정치적 관계를 포괄
- 11-12세기의 현실은 여러 국가간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조약체제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간 관계로서 다중심 국가체계에 따라 고려와 夏 같은 소국들이 거란과 송 사이의 대륙의 갈등과 대립을 활용하여 보다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수행
- 2개의 트라이앵글 국가간 관계: 동북지역의 고려-송-거란, 서북지역의 하-송-거란
- 고려와 하는 국가 관계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였고 대외정책상 상당한 유사성
- 거란과 송에 비해 소국이나 고려와 하의 군사력은 상당하였고 군사적 세력균형을 와해시킬 수 있을 정도, 고려와 하는 군사적 균형에서 균형자로서 기능
- 고려와 하가 거란과 송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조공국으로 묘사되지만 중국왕조에 경의나 충성서약을 맹세하지 않았고, 자민족 중심적이고 다원적 세계관 주장
- 송은 2개의 강력한 유목 이웃과 조우, 동북아시아 다국가 시스템에서 외교적 대등성을 수용할 필요
- 고려는 중국문화를 숭상하는 충실한 조공국가와 위험한 북쪽 유목민에 대항하는 잠재적 군사동맹으로 인식한 반면, 하는 국경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야만국가
- 근본적 차이는 고려와 하의 조공체제 준수 정도가 아니라 지정학적 구도
- 하는 거란, 송과 공통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이웃과 빈번하고 직접적 대립에 개입된 반면 고려와 송은 공통의 국경을 공유하지 않아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호적

#### 1005년 1월 19일 전연지맹의 체결

- 송이 대년 100,000량의 은과 200,000필의 비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호적 관계를 제공하는 맹세문서의 형태
- 전연지맹은 2개의 천자를 공식적으로 인정,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가식 종식, 전연지맹은 동북아에서 장기간의 평화, 교역,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건 제공, 긴밀한 소통을 촉진하고 잠재적 갈등의 요소가 군사적 대립으로 전개되는 것을 예방
- 11-12세기 다중심 국가간 관계의 현실은 조공체계로 설명될 수 없고 대외정책 수립에서 가장 기본적 목적은 자기보존에 대한 국가의 궁극적 관심, 지정학적 구도가 안보의 문제를 정의하고 잠재적 적과 동맹을 결정

### 2. Goryeo-Khitian Wars in the Late 10th and Early 11th Centuries

- 일반적으로 고려와 거란사이의 관계는 군사적 충돌과 공개적 적대관계인 반면 고려와 송

### 은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

- 고려가 중국의 많은 문화와 제도를 승상해지만, 중국의 정치적 우월성을 사물의 본질질서로서 수용했다는 증거는 적으며, 고려의 기록에서는 송을 上國이 아니라 西朝 라는 중립적 관념을 사용
  - 고려의 주된 관심은 신중한 세력균형의 유지를 통해 국가의 보존과 북쪽 국경의 안보
  - 고구려 영토 회복이라는 수사에도 고려의 대외정책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정책
- 
- 10세기 거란의 군사적 팽창에 직면하여 고려와 송은 서로 잠재적 동맹으로 간주하였으나 군사적 동맹에서의 잠재적 정치적·영토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거란과의 공개적 갈등이 위협이 너무 커서 고려와 송의 정책결정자들이 실질적 동맹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는 점
  - 986년 송이 거란의 압박을 받았을 때 고려는 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지원 제공 거절, 993년, 1010년, 1018년 세 번의 고려 침입에도 불구하고 송은 고려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
  - 10세기 말 송과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거란은 배후로부터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전체 군사력의 일부만을 전투에 배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와 송은 만주국의 부분적 힘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는 점
  - 거란의 고려 침입의 주된 목적은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고려와 송 사이의 군사적 동맹의 예방
  - 993년 거란의 첫 침입 이후 고려는 거란을 종주국으로 인정하였고 거란의 우월성을 인정함에 따라 고려는 송과의 외교관계를 파기할 필요
  - 994년 6월 고려는 송에 거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으나 송은 거절, 이에 실망한 고려는 송에 대한 조공 중단
  - 994년부터 995년까지 고려는 3차례 조공사절을 거란에 파견, 거란어 학습을 위해 10명의 소년 파견
  - 995년 고려 성종은 거란조정에 결혼 동맹 제안, 996년 성종 사망, 거란에 부의 공지 사절을 파견하였으나 송에는 사절에 의한 공식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 
- 고려와의 국경이 안정되자 거란은 다음해 송과의 군사적 노력에 집중하였고 997년 고려 목종이 즉위하자 거란은 즉각 승계 인정
  - 고려는 거란조정에 지속적인 사절 파견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정책조정: 1002년 거란의 송에 대한 군사적 승리 이후 그리고 1004년 전연지맹 체결 후 고려는 축하 메시지 전달
  - 전연지맹으로 송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거란은 고려로 관심 전환
  - 1009년 강조의 목종 시해 사건을 구실로 국왕살해죄를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1010년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
  - 1011년 개경을 함락하였지만 병참선 차단으로 급히 퇴각
  - 1012년 4월 거란 조정은 전례 없는 고려왕의 親朝라는 화친 조건을 고려 조정에 최종 통보, 고려 현종이 칭병으로 거절하자 거란은 6주에 대한 공격 재개
  - 전투가 격화되자 양국은 1012년 10월부터 1016년 1월까지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절 교환(고려가 거란에 4번, 거란이 고려에 9번)
  - 1014년 거란의 국경지역 요새화와 압록강 부교건설에 대한 고려의 불안

- 거란에 대한 고려의 강경정책: 1015년 거란 사절 감금, 1016년 거란 사절 수용 거절, 고려는 자발적으로 송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중국의 우월감에 호소하는 한편, 1014년 11월, 1015년 11월, 1017년 7월, 1019년 8월 송에 사절을 파견하여 군사적 지원 요청, 송은 전연지맹 이후 평화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지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위험 감수하기를 거절
- 고려조정의 친조 거절에 따라 1018년 거란의 대규모 세 번째 침입
- 1011년 전략과 마찬가지로 수도로 곧바로 진격, 1019년 2월 귀주대첩에서 궤멸
  
- 1029년 8월 요동에서 大延琳(발해 시조 7대손이라고 주장)의 반란에 따른 고려와 거란관계의 복잡한 성격
- 대연림은 고려에 사절을 보내 지원 요청, 고려는 거절
  
- 전투가 지속되자 고려조정은 거란과 '연호의 정치' 전개
- 거란 홍종(1031-1055)이 즉위하였을 때, 고려는 慶福(1031-32), 重熙(1032-55) 연호 사용을 거부하고 전 황제 성종(982-1031)의 연호 太平을 계속 사용
- 이를 통해 전 황제의 고려의 정치적 정당성과 안전을 인정한 것을 존중하라는 압력, 정치적 정당성의 게임에서 종주국이 책봉을 거부하듯이 조공국이 연호의 사용 거절
- 국경에서의 평화를 대가로 고려가 거란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져 1039년 이후 평화 지속, 그렇지만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
- 11세기 고려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고구려 영토의 회복이라는 확장에서 북쪽 국경의 유지로 전환

### 3. Xia-Song War in the mid-11th Century

- 西夏는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로서 夏는 크고, 전략적이고, 비옥하며 생산적인 河西走廊의 영토를 지배
- 고려와 달리 송과 빈번한 국경 충돌에 개입
- 전략적 Ordos지역에서 교역루트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송이 충돌 유발
- 송이 외형적으로 소국 하를 압도할 만큼 크고 강하고 부유했지만 하의 우월한 기병부대로 인해 차단당하는 문제
- 거란과 하가 송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공모한다는 우려
- 2개의 전선에 대한 우려로 송은 모든 군사적 자원을 집중할 수 없는 문제
- 송이 소국 하를 패배시킬 수 없었다는 점
- 또한 하는 외교전선에서 송의 허를 찌르는 행동, 하의 Li Jiqian은 거란의 종주권을 인정한다고 제안, 989년 거란의 황녀를 신부로, 990년에 공식적으로 夏國王으로 책봉
- 이러한 연계로 하국왕이 1004년 티벳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였지만 거란의 침입 때문에 송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없었던 점
  
- 11세기 초 하와 송사의 군사적 교착에 따라 전연지맹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협정의 체결하였는데, 주된 차이
- 거란과의 전연지맹의 동등에 기반
- 하와의 맹약은 명목상 송의 우월성에 기반

- 그렇지만 국경지역의 평화를 대가로 송이 세폐를 주는 기본 틀은 동일
- 1038년 하의 지배자 Li Yuanhao李元昊는 명목상의 대등관계를 요구
- 왕씨(royal surname)를 Weiming으로 개명, 스스로 大夏(황제)라고 선언하고 송의 인정을 요구
- 송은 991년 Li Jiqian에 수여한 왕씨를 Zhao를 계속 사용, 황제 수용 거절
- 송은 관계와 세폐를 끊고 국경시장 폐쇄로 압박
- 하의 송의 국경 침략으로 6년간 치열한 군사적 대립 지속, 1039년 하는 국경지역을 침략하였으나 큰 성공 없이 퇴각
- 반면 송나라는 인구가 적고 군사기지간 거리가 먼 서북 국경의 방어문제에 직면, 특히 병력의 수송과 보급 등 어려운 병참 문제 해결 필요,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요하는 기병의 필요, 같은 해 심각한 기근
- 송은 1041년 好水川 전투에서 대패, 이후 송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더 이상 하의 영토에 대한 공격 시도 중지
- 특히 송은 하와 거란 사이의 군사적 동맹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송은 정기적으로 거란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에 대한 송의 행동을 통지하는 사절을 거란에 정기적으로 파견
- 전연지맹 이후 거란-송관계는 평화로웠고 거란은 송에 대해 합동공격하자는 하의 제안 거절
- 하와 송의 전투가 격렬해지자 거란은 취약한 송으로부터 추가양보 도모
- 1041년 거란의 성종은 송 국경에 군대 배치, 송조정은 2개 전선 가능성 우려
- 1042년 송에 파견된 거란 사절은 關南지역의 반환 요구
- 송은 영토양보는 거절하였으나 세폐의 증액과 송 황녀와 거란황제와의 결혼 고려  
1042년 거란은 은 100%, 비단 50% 증액 획득
- 그렇지만 세폐의 증액이 송에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세폐가 송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
- 거란의 군사적 개입은 피했어도 하와의 전투는 지속, 1042년 송은 13명의 장수와 9,400명의 병사를 잃는 전투에서의 패배
- 하는 송의 영토를 점령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은 없었지만 송의 지역을 약탈하고 퇴각할 수만 있는 상황, 하의 우월한 기병과 송의 대규모 인구와 경제력 사이의 소모전
- 1043년 초 교섭 시작, 송의 종주권 인정 대가로 비단 100,000필과 차 3,000근 세폐 약속, 그러나 하의 지배자는 보다 많은 세폐와 사절의 교역권 국경시장에서 소금 판매권 요구, 송이 소금 판매를 허용하자 하의 지배자는 송의 신하로 호칭 허용  
1044년 5월 전쟁 종식
- 誓表(sworn vassal-letter)와 誓詔(sworn decree)의 사인, vassal과 decree는 위계적 관계이므로 자기모순적, 한나라의 조공체제 도입에서의 비중국적 요소
- 하와의 6년 전쟁의 인적·물적 비용은 상당했지만 조공체제의 중화적 이상주의에 대한 타격이 훨씬 컸다는 점
- 하와 송의 타협 이후 하와 거란 사이에 국경을 접한 부족간 군사적 충돌, 거란과 하 사의 조공관계가 우월-복속 관계는 아니라는 점